



‘몸관리 강조’ 양현종의 에이스 책임감

“7년 연속 1700이닝 목표” 54

양현종(32, KIA)은 지난해 에이스로서 꾸준함을 증명했다. 29경기에 나와 184⅔이닝을 던져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를 기록했다. 여기에 시즌 종료 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으로도 활약했다. 실 톱 없이 1년을 보낸 가운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는 많은 변화를 만났다. 새 사령탑으로 맷 윌리엄스 감독을 선임하며 창단 첫 외국인 감독 체제를 만들었다. 여기에 스프링캠프도 오키나와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떠났다.

새 시즌을 앞둔 양현종은 “항상 똑같은 것 같다. 캠프 가면 설레기도 하고 시즌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모든 10개구단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도 다른 선수, 팀 못지 않게 잘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시즌 종료 후 두 번째 FA 자격을 얻는 양현종은 해외 진출에 대한 꿈도 내비쳤다. 그만큼 올해

1년 성적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양현종은 “올해 끝나고 중요한 시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는 것”이라며 “작년에는 처음부터 캠프를 합류 못해서 팀에게나 나에게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연도는 같이 출발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겠다. 코치님과 이야기하면서 어린 선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캠프를 잘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팀을 내세웠다.

지난해 양현종은 초반 부진에 평균자책점이 9.00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후투를 펼치면서 시즌 평균자책점을 2.29로 마치고 전체 평균자책점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양현종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상승세 분위기를 잇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던져서 걱정과 염려도 많이 하신다. 그러나 한 시즌 몸을 다 쓰고 재충전하고 다시 한 시즌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 큰 걱정은 없다”라며 “아

프지 않게 캠프에서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서 작년처럼 초반에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고 초반부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팀 에이스”로서의 각오도 전했다.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이 메이저리거로 떠나면서 오는 7월 열리는 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지면 양현종의 무게감이 더욱 커졌다.

양현종은 “나도 뽀하지 않았다. 다시 뽀한다면 작년에 좋지 않았던 모습을 만회하고 싶다. 대표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잘 뽀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날 것 같다. 작년에 아픔을 못 본 선수들이 또 뽀할 것 같은데 각오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 같다”라며 “만드시 지켜야하고 설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제대회에 임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올림픽이 메이저리그 도전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양현

종은 “국가대표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뽀함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보다는 팀이 이기는데 신경을 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현종은 올해 16승을 더하면 이강철 KT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역대 타이거즈 선수 최다승인 152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양현종은 “승은 운이 따라야 한다. 승보다는 7년 연속 1700이닝 기록을 달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승보다는 이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꾸준히 많은 이닝을 던진 비결에 대해서는 동료들에게 공을 던졌다.

그는 “유연한 편이다. 어깨, 옆구리 등 부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보강 운동도 많이 하고 있다. 또 가 선발로 나왔을 때 야수들이 많이 집중을 해주고 있다. 항상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용규 복귀하고 정진호·김문호 가세 한화 외야의 무한경쟁

호잉 포함 총 9명 스프링캠프 명단에...선수층 두꺼워져

이용규(35)가 복귀하고 정진호(32)와 김문호(33)가 가세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야에 무한경쟁이 펼쳐진다.

한화는 지난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2020년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캠프 명단은 총 47명, 그중 외야수는 9명이다.

이용규, 정진호, 김문호와 함께 제라드 호잉(31), 최진행(35), 장진혁(27), 장운호(26), 이동훈(24), 유장혁(20)이 외야수로서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루수와 외야수를 병행했던 이성열(36)은 한화의 캠프 명단에 내야수로 분류돼 있다. 외야 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 시즌은 1루수에 전념할 전망이다.

한화의 외야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즉시 전력감 3명이 추가됐다.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이용규가 복귀했으며 정진호가 2차 드래프트, 김문호가 방출 선수 계약을 통해 각각 합류했다.

확실히 지난해보다 외야의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먼저 외국인 선수 호잉은 불박이다. 호잉이 우익수를 맡고, 나머지 선수들이 좌익수와 중견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를 예상해볼 수 있다.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역시 ‘국가대표 테이블테터’ 출신 이용규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난해 1년 간 공백이 있지만, 워낙 가진 기량이 뛰어난 선수인 데다 남다른 각오로 체중을 6-7kg이나 감량하며 캠프를 준비했다.

정진호와 김문호도 충분히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용규

정진호는 두산 베어스의 단단한 외야 선수층을 뚫지 못해 백업 신세에 머물렀으나 2018년 111경기에서 타율 0.301을 기록한 경험이 있다. 김문호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2016년 140경기 타율 0.325로 활약한 적이 있으며 통산 타율도 0.283에 이른다.

지난해 113경기에서 타율 0.254를 기록한 장진혁, 상무에서 제대한 뒤 지난 시즌 후반 복귀한 장운호, 고졸 2년차 유장혁 등 젊은 피들도 외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의 지난해 팀 타율은 0.256으로 8위였다. 그러나 좌익수(0.235·이하 선발출전 기준), 중견수(0.243) 포지션의 팀 타율은 10위로 더욱 초라했다. 호잉이 버틴 우익수의 경우 6위(0.276)이다.

지난해 경쟁력이 전혀 없었던 좌익수, 중견수 포지션을 강화하는 것이 반등의 열쇠다. 일단 경쟁의 틀은 갖췄다.

뉴스1

류현진, MLB.com 선정 최고 선발 5위...1위는 디그롬



‘코리언몬스터’ 류현진(33)이 메이저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특급 선발 투수로 인정 받았다.

MLB.com은 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톱10을 선정했다. 류현진은 5위에 올라 메

이저리그 최정상급 선발 자원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MLB.com은 “지난 시즌 류현진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5경기 이상 선발 등판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32의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2019년에는 MLB.com의 톱10 투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4년 총액 8000만달러라는 좋은 대우를 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팀을 옮겼다. 류현진은 2020년 토론토의 에이스로 활약하게 된다.

MLB.com 리스트에서 1위는

뉴욕 메츠의 제이콥 디그롬이 뽑혔다. 디그롬은 지난해 32경기에서 11승8패 평균자책점 2.43을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of 저스틴 벨런더는 2위, FA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뉴욕 양키스와 9년 총액 3억2300만달러에 계약한 게릿 폴은 3위다.

지난해 1위였던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는 4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다소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에 이어 잭 그레이нки(휴스턴), 잭 플래허티(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패트릭 코번(워싱턴 내셔널스), 마이크 클레빈저(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윌리 볼러(LA 다저스) 등이 차례로 6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뉴스1



장우진-조대성(왼쪽) 조가 2일(한국시간)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독일오픈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마롱-링가오윤 조를 꺾고 우승했다.

장우진-조대성, 마롱-링가오윤 꺾고 탁구 독일오픈 우승 ‘이번’

장우진(25·미래에셋대우)과 조대성(18·대광고)이 중국의 마롱-링가오윤을 꺾고 독일오픈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2일(한국시간)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독일오픈 남자복식 결승에서 마롱-링가오윤 조를 3-2(10-12 15-13 12-14 14-12 11-6)로 제압했다.

국제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지 4개월만에 차지한 우승이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지난해 9월 아시안선수권을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한 신예 복식조. 그러나 놀라운 집중력으로 만리장성을 넘고 정상에 우뚝서는 파란을 일으켰다.

8강에서 일본의 우다 유키야-도 가미 스키 조를 꺾은 장우진-조대성 조는 4강에서 대표팀 선배인 이

상수(삼성생명)-정영식(상무) 조를 몰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접지 않았다. 5세트 중 4개 세트에서 듀스 접전이 펼쳐졌다.

1세트가 아쉬웠다. 10-8로 앞서며 승리를 앞섰으나 연속 4점을 빼앗기며 세트를 내줬다. 그러나 2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15-13으로 잡아내며 균형을 맞췄다.

3세트를 12-14로 내준 장우진-조대성은 4세트를 14-12로 되찾으며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갔다.

5세트는 유일하게 듀스까지 가지 않은 세트였다. 10-6로 앞선 상황에서 조대성의 공격이 특점으로 이어지며 긴 승부가 마무리됐다.

뉴스1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4일 ‘플레이볼’

팀당 10경기...사직구장은 그라운드 공사로 제외

본격적인 정규리그 레이스를 앞두고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3월 14일부터 11일 간 시범경기를 통해 전력을 점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0년 KBO리그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시범경기는 오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각 팀 별로 5개 팀과 2차전씩 10경기, 총 50경기가 펼쳐진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고척(KT-키움), 대전(SK-한화), 대구(두산-삼성), 광주(롯데-KIA), 창원(ILG-

NC) 등 5개 구장으로 확정됐다.

경기 일정은 이동거리와 그라운드 공사 일정으로 사용 불가능한 구장을 고려해 편성됐다. 잠실구장은 3월 14-16일, 인천과 수원은 3월 14-18일까지 그라운드 공사가 진행된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 구장인 사직구장도 시범경기 내내 공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 시범경기 일정에서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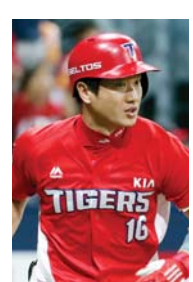
한편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은 오는 3월 28일 막을 올려,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재활’ KIA 김주찬, 10일 스프링캠프 합류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내야수 김주찬(39)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 상태를 보이며 미국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KIA는 1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캠프에 추가로 선수들이 가세한다. 1일 장영석, 10일에는 김주찬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맷 윌리엄스가 지휘봉을 잡은 KIA는 지난달 30일 플로리다로 1.2군 합쳐 총 54명의 선수단이 떠났다. 지난해 12월 윈 허버지 지방 종 제거 수술을 받아 재활 중이었던 김주찬은 캠프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캠프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예상 재활기간은 4~5개월로 개마 후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달 2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KIA 유니폼을 입은 장영석도 준비를 마친 뒤 미국으로 향했다. KIA는 박준태와 현금 2억을 더해 장영석을 데려왔다.